

스즈짱 드롭킥! 4-1화 -한국어

“오라앗!”



콰앙!

“그하옥!!”

“버밀의 강원에서 뺀어나온 래리어트가 엔젤에게 작렬! 혼자서 둘을 상대하는 이 불리한 상황. 과연 벗어날 길은 있는것인가!”

관중들의 함성과 함께 블러디오크 버밀의 래리어트에 직격당한 스즈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쳐 매트에 내동댕이 쳐진다. 2:1의 핸디캡매치. 거기에 버밀과 태그로 들어온 알라우네 파프리카의 계략에 양팔까지 뒤로 묶여 스즈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어떻게 된거야 천사씨. 오늘은 상태가 안 좋은가보지! 이걸 네년한테 차였던 내 배의 몫이야!”

퍼어억!

“오에엑!”

다부진 근육으로부터 뺀어나온 펀치가 스즈의 배 깊숙히 박히며 그 작은 몸이 공중으로 튀어오른다. 죽은 개구리처럼 납작 엎드려 위액을 토하는 스즈를 버밀이 발길질하며 가지고 노는 사이 링 바깥에서 대기하던 알라우네가 태그를 강요한다.

“터치해! 언제까지 너만 재미볼 셈이야?”

"치! 알겠다고."

버밀과 태그해 링으로 들어온 파프리카가 나무덩쿨을 전개해 스즈의 팔다리를 구속해 로메로스페셜을 걸어 온다.



"으아웃..! 크아아아!!"

"후후, 아이 같은 몸 하고있는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가슴이나 달고 다니고, 용서못할 신체네. 듬뿍 벌주지 않으면 안되겠는걸?"

전신을 달리는 극심한 통증, 하지만 구속구처럼 손발을 동여맨 나무덩쿨이 스즈의 신체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결국 파프리카가 내킬때까지 기술을 받아내고 나서야 매트에 던져진다.

"가핫..! 으웃..아아웃..!"

더 이상 아픈꼴 당하기 전에 벗어나지 않으면..하고 마음속으로 다그치지만 형용할 수 없는 고통에 벌려진 입에서 알아듣기 힘든 신음소리만 흘릴뿐, 망가져 버려진 인형처럼 매트에 널부러진 몸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 스즈를 검은 두 그림자가 사악한 비웃음소리를 흘리며 조여들어오고 있었다.

...

..

퍼억!

"우억..!"

알라우네에게 뒤를 붙잡혀 움짱달짝 못한 채 아랫배 정중앙에 블러디오크의 주먹이 꽂히자 스즈가 괴로운듯 매트 위에 타액을 뱉어낸다.

퍽! 퍼억! 빠악!

"웁!! 구흡!! 우웨엑!!"

"어찌된 일인가! 파이터엔젤!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헬즈플레이어의 턴이다!"



"흠, 얼마나 대단한 레슬러인가했더니 소문만도 못하군. 이깟 녀석 상대로 친위대 둘이나 나설것도 없었는데 마리아님도 완벽주의가 지나쳐."

"후후, 그 잘난 파이터엔젤씨가 고기샌드백이라니 네 명성도 이제 땅에 떨어진거야."

더 이상 시합이라 볼 수 없는 일방적인 린치의 현장. 주먹자국이 찍힐 정도로 노출된 배를 수차례 가격당해 토해낸 위액이 얼굴과 가슴 언저리를 질척하게 더럽히고 있었다.

'이제.. 아픈 꼴 당하는건 싫어... 그치만..'

그때 충분히 재미를 봤는지 블러디오크가 다른 기술을 시전하기 위해 후방으로 크게 물러난다.

"제대로 붙들고 있어. 지금 큰걸 한방 먹여주지!"

"너 그걸 쓰려는건.. 머, 멍청아! 그걸 맞았다간 나까지..!"

"호들갑떨지마. 이럴때 쓰는거니까 피니쉬무브라는거야!"

버밀이 로프반동으로 어깨를 앞세워 돌진해온다. 전형적인 스피어였지만 저 체급에 직격당하면 무사하지 못할터. 그 모습에 지레겁먹은걸까 순간 스즈를 구속하고 있던 파프리카의 넝쿨이 느슨해진다.

'지금이야!'

스즈가 파프리카의 어깨를 잡고 지면을 차 공중으로 몸을 날리자 스피어의 충격에 대비하는데만 정신이 팔려있던 파프리카는 방패막이었던 스즈가 공중으로 사라진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만다. 하지만 이미 대응하기엔 너무 늦었다.

“에!?”

쿠-웅!

“부게에엑!!”

버밀의 스피어에 직격당한 파프리카가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힘없이 튕겨 날아가버린다. 중량급의 버밀에 비해 파프리카는 외소한 체구였고 그건 마치 트럭에 충돌사고 당한 경량급 오토바이 같았다.

“어, 어디로 사라진거야!”

당황한 사이 이미 로프에 도달한 스즈가 드롭킥을 날려온다. 버밀이 이미 늦었음을 직감하지만 드롭킥을 피해보려는 그 순간 반대편 로프에서 튕겨날아온 파프리카가 버밀의 등뒤에 충돌하며 퇴로를 끊는다.

퍼어어억!!

“꾸웨에엑!!”

돼지 멧따는 소리와 함께 드롭킥이 안면에 적중! 안그래도 파프리카에게 등을 떠밀리고 있던 버밀은 드롭킥에 배 이상의 데미지를 받고 만다. 자랑하던 어금니까지 나가 선혈을 뿌리며 파프리카와 함께 매트 위로 포개지듯 엎어진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스즈가 탑 로프를 밟고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전매의 화려한 공중곡예를 선보인 후 고속낙하해 버밀의 몸통에 더블 니 드롭을 때려박는다.

퍼어어억!!

“끄에에엑...!! 카핫, 캣, 크헤엑...!!”

“나왔다, 엔젤 니 드롭! 엔젤의 양 무릎이 블러디오크의 바디에 착탄!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공중제어력이다!”

복근이 전부 박살날 정도의 충격, 친위대 최강의 근육이라 불렀던 버밀이었지만 그 이름도 무색하게 타액을 질질 흘리면서 눈을 까뒤집은 채 실신해버린다.

“1,2,3!”

깡- 깡- 깡-

“파이터엔젤, 굴지의 근성으로 다시 한번 펀치를 넘어서 역전승! 하지만 이런 불안한 전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안돼.. 의식이.. 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마지막 기지를 발휘해 가까스로 승리한 스즈였지만 몸에 누적된 데미지는 치명적이었다. 로프에서 벗어나려는 순간 몸을 지탱하던 힘을 잃고 링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는다.

....

...

..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공간. 스즈가 무언가에게 쫓기듯 도망치고있다.

“우리 새끼강아지가 어딜 그리 급하게 가는걸까?”

도망가던 스즈가 어느샌가 앞에 위치한 네로미에게 부딪혀 넘어지고 그대로 네로미에게 잡아채 링 안으로 던져넣어진다. 태세를 바로 세운 스즈가 로프에 몸을 튕겨 자신을 쫓아 링으로 들어온 네로미를 향해 드롭 킥을 날리지만 네로미의 신체를 뚫고 지나가 매트를 구른다.

“아윽!”

“후후, 또 도망치는거니? 날 내버려두고..”

드롭킥에 의해 기괴한 형태로 뒹그러있던 네로미의 신체가 곧 봉합되더니 아리사토의 모습으로 의태한다.

“그런...! 크윽!”

아리사토로 의태한 무언가가 스즈의 목을 조른다.

“너만 아니었으면 난 이런 꼴이 되진 않았어.”

스즈를 마주한 아리사토의 얼굴가죽이 서서히 흘러내리더니 안의 백골이 드러난다.

“헉! 누가.. 누군가 도와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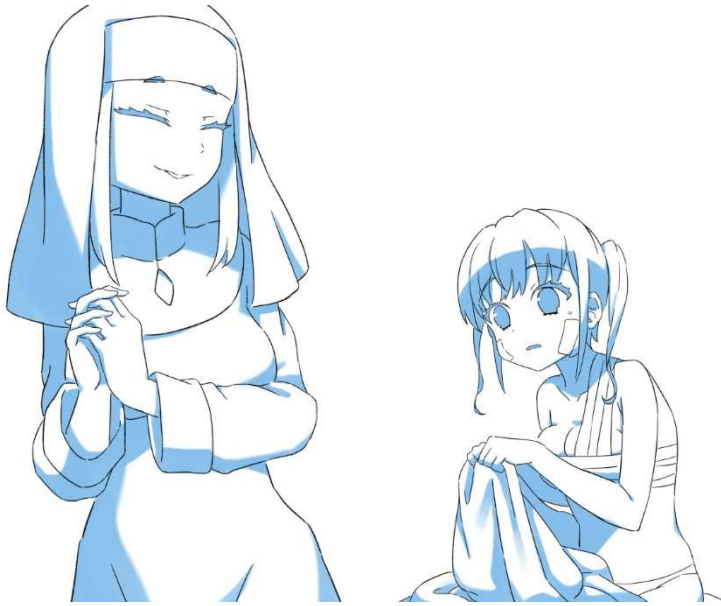
...

..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면 그곳이 자신의 방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갓난아이 시절부터 지내온 보육원. 스즈의 유일한 보금자리였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던거지? 기억이 안나...’

자신의 몸을 훑어보면 누군가의 간호를 받은 흔적이 있다. 분명 시스터가 조치해준 것이겠지. 이 보육원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교회의 시스터가 관리를 맡고 있었다. 자신을 보육원에 맡긴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은 부모를 대신해 스즈에게 있어 그녀는 유일한 가족으로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마침 시스터가 세척한 물수건을 손에 든채 스즈의 방에 들어온다.



“학원엔 이미 전해두었으니 오늘은 꼭 쉬는게 좋아요.”

“ซิส터... 난 어떻게...”

“근처에 쓰러져있는걸 보육원의 아이들이 알려줬어요.”

자신의 상태에 대해 무언가 추궁하지 않을까 조바심이 났지만 시스터는 말없이 수건과 대야를 두고 자리를 떠나려한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해요, 시스터. 그게...”

“유메하라의 일이니까 구태여 추궁하진 않을게요. 그렇지만 고민이 있다면 찾아오세요. 언제든 상담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으니까요.”

ซิส터가 굳이 추궁하지 않는건 스즈 자신의 입으로 말해주길 바라고 계신거겠지. 하지만 주변인을 끌어들이다간 자신을 포함해 시스터 역시 위험하게 입장에 처하게 될것이다. 그때의 아리사토 선배처럼. 시스터의 신뢰에 답하지 못하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스즈는 어딘가 슬픈 기분이 들었다.

“전 지금부터 외부에 용무가 있기 때문에 밤까진 돌아오지 않을거예요.”

방을 나서려던 시스터가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한마디 덧붙이며 나간다.

“아 그래, 유메하라의 앞으로 택배가 도착했어요.”

‘내 앞으로 택배? 그런걸 보내올 사람은 없을텐데..’

택배를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먼저 학원에 등교하는게 우선이다.

‘방에서 쉬라고하셨지만 시스터께 걱정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역시 학원엔 가는게 좋겠지!’

....

...

..

‘별써 이런 시간. 일단 프로레슬링부여라도 얼굴을 비추는게 좋을까.’

학원 근처에 도착했을때 이미 많은 학생들이 귀가를 하고 있었다.

“넛에 올라온 파이터엔젤의 동영상 봤어?”

‘내 얘기?’

타학원의 남학생 두명이 자신의 화제를 꺼내자 신경이 쓰인 스즈가 두 사람의 회화를 모퉁이에서 엿듣게 된다.

“핑크색 돼지한테 화려하게 깨졌던데. 이 조희수 봐! 정의의 히로인인지 뭔지했던 주제에 그런 표정이나 짓고 암캐가 따로 없다니까.”

그리고보니 헬즈플레이어는 일반미디어에서 공개된 영상 외에도 자체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넛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했었지. 평소에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나쁜 레슬러들을 벌하는 정의의 히로인을 자처하면서 단 한번의 패배에 오줌까지 지리면서 목숨구걸하는 부끄러운 모습까지 보여버렸어.

‘역시 얼굴을 들고다닐 수가 없어.’

이렇게 타인에게서 들으니 그때의 패배가 다시 한번 실감된다. 꺾여오는 자존감에 스즈는 왔던 길을 되돌아 집으로 돌아가려할 때였다.

“유메하라!”

자신을 불러세우는 목소리에 뒤를 돌아본다. 타카세 리나였다.

부실에서 훈련에 열중하고있을 그녀가 어째서 이런곳에...?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입을 연 타카세에게서 나온 목소리는 굉장히 차갑고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도망치지마.”

왜 그렇게 차갑게 말하는거야? 하지만 리나짱은 언제나 차가웠잖아. 그제 내가 그렇게 들릴 뿐인걸까? 무엇으로부터 도망치지 말라는거지? 리나짱으로부터? 의미를 모르겠어.

Q. 타카세의 말에 스즈는...

A)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B) 자리에서 벗어나 도망친다.
